

통일 칼럼

북-러 전방위 밀착

북-러 간 밀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양의 과학 토론회에 러시아 인사들이 참석하고, 북한 제약업체는 러시아 시장 진출 준비에 나섰다. 양국은 미디어 분야도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교류들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11월 평양 과학기술 전당에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북한 최고의 공대로 꼽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주최한 토론회로 과학기술 발전과 전략적 자원이 주제였다. 러시아를 비롯해 외국의 대학과 과학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조선중앙TV는 11월 13일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대학, 과학연구기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개막식에선 러시아의 카잔연방종합대학 부총장이 축사를 맡기도 했다. 카잔연방종합대학은, 지난 1월 김책공대와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개막식에 이어 기계와 에너지

공학, 정보기술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토론회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학술 교류는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의 과학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제약업체가 서방의 제재를 받는 기업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매체는 북한 부강제약회사가 지난 2월 ‘월궁불로정’ 상표를 러시아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10월 30일 “나라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 교류와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라고 보도했다. ‘월궁불로정’은 공을 원료로 한 항혈전제로, 북한에선 심부 정맥혈전증 예방제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강제약은 부강무역회사를 통해 러시아에 이 상표를 등록했는데, 부강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다. 북한-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미디어 분야에서도 나왔다. 두 나라가 미디어 정보 교환, 대중매체 협력 등 여러 공보 분야

에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중앙TV는 11월 13일 “북-러 간 공보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11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됐습니다.”라고 했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 이후 관계를 밀착하며 전방위적으로 교류에 나서고 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한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북한과 깊은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은 국내법적 요건과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한 서방의 제재 이후 북한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군사적으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전주 종광대 토성

후백제 유적이 대거 출토된 전북 전주시 중노송동 종광대 토성이 역사적 가치가 높아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와 후백제학회는 11월 18일 전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전주 종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6월 전북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된 종광대 토성이 사적으로 지정되도록 고고학·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유적 활용과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6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대성 전북문화유산연구원 팀장은 ‘전주 종광대 토성의 조사성과를 주제로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종광대 토성의 발굴 및 정밀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성과와 학술적 검토 방향을 정리했다.

허인욱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문헌기록으로 본 후백제 궁성의 위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헌과 발굴 유적·유물을 통해 종광대 토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흥선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전주 종광대 토성으로 본 후백제 토성의 범위와 구조’ 발표에서 종광대 토성 등 후백제 토성으로 알려진 발이산과 자만동, 오목대 일원의 후백제 토성(토성)의 발굴조사 내용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후백제 토성의 구조와 범위를 분석했다.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해 종광대 토성의 역사성, 완전성을 바탕으로 사적 지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한편 종광대2구역에서는 지난해 후백제 때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무산됐고, 이후 보상이 미뤄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철학자 김형석

철학자 김형석은 1920년 4월 생으로 만 106세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김형석, 백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며 “사회는 늘 경쟁 속에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손뼉 치며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 주변에 100세가 넘는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을 욕한다는 게 감정적 에너지를 쏟는 것인데 뒷사람이 화를 내면, 아랫사람이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1939년 평양 제3중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조치(上智)대학 예과를 거쳐 1944년

같은 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마쳤다. 이후 송산여자중학교·중앙중학교 교사를 거쳐, 1954년 고려대학교·한국신학대학 강사를 지냈다. 1964~85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7년 연세대 학생담소장, 1979년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장을 지냈고, 1985년 연세대 명예교수가 되었다. 김태길·안병욱과 함께 한국의 3대 철학자로 일컬어진다. 저서로 ‘철학입문’·‘철학개론’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아름다운 사색’·‘이성의 피안’·‘고독이라는 병’·‘영원과 사랑의 대화’·‘당신은 무엇을 믿는가’·‘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희망과 사랑이 있는 이야기’·‘백년을 살아보니’ 등이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푸틴 “우크라,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전투 멈출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 철수한다면 즉시 전투를 멈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화재 희생자 애도하는 국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홍콩 타이포 지구 ‘왕 폭 코트’ 아파트 단지 화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화가 꽃혀 있다. 화재 진화가 종료된 가운데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늘어났으며 구조대는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